

# 익산 마을자치연금 2호 착공

### 저온저장고 시설 사용료로 운영·출하 시기 조절... 마을 소득창출 효과 기대

농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 체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2호 마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시는 앞으로도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마을자치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을 쏟는다.

시는 28일 여산면 수은마을에서 마을공동체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하림지주, (주)TYM 등 협업기관,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시의장,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 마을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3호 마을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국 제3호이자 익산 제2호 마을인 여산면 '수은마을'은 지역의 인과 주요 재배지이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하림지주, (주)TYM 등 협업기관은 수은마을

의 수요를 반영하여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하고 시설사용료를 마을자치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저온저장고 시설을 활용한 출하 시기 조절로 기존에 저가로 판매해 오던 양파를 가격 상승에 맞춰 판매가 가능한 전망이어서 마을 소득창출이 기대된다.

익산시는 2019년부터 농촌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인 마을자치연금을 기획해 올해 마을자치연금 전국 제1호(성당포구마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적 표본모델을 탄생시켰다.

/익산=이득훈 기자

# 1 대한민국 좋은정책대회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I 주관하는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 “골목상권이 활기를 찾도록”

### 배달의 명수,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I 주관하는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시상해 기초지방정부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I 주관한 정책대회다.

이번 정책대회는 지난 10월 전국 기초지방정부 정책 288건이 응모해, 1차 외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건에 대해 지난 11월 PT 심사와 12월 국민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배달의 명수'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의 대표 주자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고도화 개발을 통해 기존 음식점뿐만 아니라 마트, 로컬푸드, 기타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여 본격적으로 온라인 종합 소광물의 초석을 다져 온라인 골목상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사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며, 배달의 명수 통해 골목상권이 활기를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형 인구감소 대응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익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28일 시는 적극적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전국적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상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명, 2021년 315명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감소폭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쾌적한 정주여건 속에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하고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행복지향 건설을 위해, '익산형 인구정책 1F'를 구성하여 인구 데이터 분석, 관계부서 토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인구 증가 요인에 기반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행복 + 익산 2630'을 발굴, 2022년부터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택, 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등 4대 분야 96개 인구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출생보다 사망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524명에 이르렀던 월평균 인구 감소폭을 2020년 488

명, 2021년 315명으로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감소폭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쾌적한 정주여건 속에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하고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행복지향 건설을 위해, '익산형 인구정책 1F'를 구성하여 인구 데이터 분석, 관계부서 토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인구 증가 요인에 기반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행복 + 익산 2630'을 발굴, 2022년부터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2026년까지 인구 30만명 회복을 목표로 단순히 인구 감소에 둔화를 정책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춰 인건 도시로 전출할 수 있는 잠재인구를 익산시에 정착시키고 동시에 외부 인구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 익산시 코로나 강력 차단 학교 '전수검사' 실시

### 학생 안전 최우선... 학부모 불안 최소화 위해 선제적 대응 결정

익산시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28일 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학부모 등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사람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유치원 8곳과 초등학교 10곳 등이 조기 방학에 돌입한 상태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27일 익산교육지원청,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공동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만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까지 총 3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1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는 42명, 이들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확진자는 119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에 조기방학과 온라인수업 전환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현을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되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는 먼저 확진자가 발생한 영등동 모현동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라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검사 의무적 검사는 할 수 없어 학교장이 원하는 학교에 한 해 조

이어서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시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조기 방학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 매뉴얼 제작과 행정에서 추진하는 행정명령 이행 의무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익산지역에는 지난 17일부터 27

## 군산사랑상품권 사업성과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군산시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을 돌파하고자 시작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사업성과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시상금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 159개 광역시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독창성, 지역경제활성화 공

헌도 등의 평가를 추진하였고 1차에 19개를 선발하고 2차 PPT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군산은 신업?고용 위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하고, 2020년 기준 가맹점 한 개업소 당 4,153만원의 매출이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등, 군산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

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군산사랑상품권의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2022년에는 중이상품권 구매한도가 많이 줄었지만 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표창

군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2021년도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기초생활 생계급여 집행 실적,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노력도 등 평가 결과가 우수해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군산 거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천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 천 명이며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4백40억원이며, 수시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나눔캠페인 '사회공헌기업' 감사패 수여

군산시는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사회공헌기업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 (주)세이베스틸, △ (주)한화에너지, △ (주)금호로지스, △ (주)유리치건설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를 받은 기업들은 명절 위문, 여름·겨울나기 성품 지원,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 및 후원, 공부방만들기, 기초소방 시설 보급, 환경보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특히 나눔문화 실천 및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 올 한해 지역사회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 넣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기업들에 감사드리며, 누구나 소외됨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군산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